

구포왜성 지성부 출토 임진왜란기 유물에 대하여*

이 동 주**

〈목 차〉

- I. 머리말
- II. 구포왜성의 축성과 지성부
- III. 고려·조선시대의 분묘와 주거지 출토유물
- IV. 출토유물에 대한 검토
- V. 맺음말

국문요약

임진왜란은 조선시대의 문화뿐만 아니라 근세사의 획기적 전환점을 제공한 대사변이었다. 시기 구분에 있어서도 이를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될 뿐 아니라, 군사체제와 전술적 변화에 따른 성곽 구조와 무기를 비롯하여 복식과 기물, 장제(무덤) 등 고고학적으로 나타나는 물질문화의 전반적인 구조의 변화가 수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큰 변혁을 불러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남겨진 왜성과 관련하여 고고학적으로 이를 다루는 연구자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특히 이 당시 문화사적으로 획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왜성의 구조와 축조수법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 이유는 왜성에 대한 조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겠지만, 단순히 발굴이나 지표 채집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구포왜성에서는 조사과정에서 조선시대의 주거지 3동이 확인된 바 있으며, 이 주거지는 구포왜성의 지성부가 축조되면서 폐기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주거지와 고려·조선시대의 분묘, 구포왜성 지성부 출토유물의 검토를 통해 임진왜란 당시 사용되었던 유물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구포왜성, 임진왜란, 정유재란, 분청사기, 조선시대 도기, 스리바찌(掃鉢)

* 본 논문은 2018년도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I. 머리말

임진왜란은 조선시대의 문화뿐만 아니라 근세사의 획기적 전환점을 제공한 대사변이었다. 시기 구분에 있어서도 이를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될 뿐 아니라, 군사체제와 전술적 변화에 따른 성곽 구조와 무기를 비롯하여 복식과 기물, 장제(무덤) 등 고고학적으로 나타나는 물질문화의 전반적인 구조의 변화가 수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남겨진 왜성과 관련하여 고고학적으로 이를 다루는 연구자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¹⁾ 1592년 4월 13일 기습적으로 조선을 침입한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보급로 확보를 위하여 부산을 기점으로 하여 각 방면의 진격로를 따라 거점지역에 왜성 축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명의 참전과 함께 조명연합군의 반격과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하는 수군의 선전으로 인해 제해권이 상실당하자 보급로 차단 의 위기감을 느끼게 되면서²⁾ 1593년 4월부터(선조 26년)부터 정유재란이 발발하기 까지 5년 간의 강화회담에 응하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전략적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전라도 지역 점령을 위한 목적으로 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약 30개소에 이르는 왜성 축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연구자에 의한 연구성과는 아주 미미한 편이지만,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해 왜성의 측량과 구조 및 성격, 출토 유물 등에 대한 소개와 검토는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³⁾

아울러 지금까지 고고학적 경향은 주로 왜성의 구조나 축조수법과 관련한 분야로 집중되었고, 당시 유물에 대한 검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를 다루는 고고학적 분류에 있어서도 임진·정유재란기를 기점으로 전후기 구분과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 이 당시 유물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부분 채집된 기와류를 중심으로 소개 하는 것 정도의 수준

1) 왜성(倭城) 관련 연구로 박사학위를 가진 이는 2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형재, 『한국 남해안 왜성 축조술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나동욱, 『한국의 왜성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2) 笠谷和比古, 『丁酉再亂(慶長の役)と泗川倭城戰鬪』 『壬辰倭亂과 船津里城』, 2003

3) 山崎敏昭, 『巨濟島4倭城の瓦』 『倭城』 I, 1997; 黒田慶一, 『倭城の滴水瓦について』 『倭城』 I, 1997; 黒田慶一, 『順天城の採集遺物』 『倭城の研究』 2號, 1998; 山崎敏昭, 『南海倭城の瓦類』 『倭城の研究』 4號, 2000; 羅東旭, 『南海倭城の瓦類』 『倭城の研究』 4號, 2000; 小澤晃子, 『安骨浦倭城の採集陶磁器』 『倭城の研究』 4號, 2000; 黒田慶一, 『明洞倭城の陶磁器·瓦類』 『倭城の研究』 5號, 2002

이었으며, 일부 채집유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임진왜란 이후 시기의 유물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전쟁 시기에 사용되었던 유물들의 성격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기와의 경우도 왜성 축조 당시 인접한 지역의 사찰이나 향교 등의 기와건물을 뜯어 사용한 것이었기 때문에⁴⁾, 막연히 조선 전기 기와라고만 소개될 뿐, 이 당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⁵⁾

그런데 필가가 참가한 구포왜성의 지성부에 대한 조사⁶⁾ 당시, 왜성의 건축 재료로 사용되었던 각종 기와와 함께 전쟁 직전까지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수혈 주거지 3동이 발굴되었다. 이 주거지는 보고서에서도 고찰에서 제외되는 등 다소 소홀히 취급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주거지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이곳에 왜성을 축조하게 되면서 폐기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간단한 검토를 통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구포왜성의 축성과 지성부

1. 구포왜성의 축성

구포왜성 지성부 구간은 부산시 북구 덕천2동 산 107-1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고속도로에 의해 왜성의 본성부와 지성부가 남북으로 분리된 상태인데, 남쪽의 야산으로 남아 있었던 지성부 일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실내 빙상경기장을 건립을 계획하면서⁷⁾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2002년 2월 26일부터 동년 8월 24일까지, 그리고 2004년 4월 16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 2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삼한시대 목곽묘 2를 비롯하여 고려시대 목관묘 16기, 조선시대 목관묘 20기 등 각종 분묘들이 조사되었으며, 이와 함께 정상부를 중심으로 구포왜성의 지성부로 추정되는 각종 유구들이 확인되었다.

구포왜성에서 붙는 현재의 지명인 구포는 일제 강점기 이후에 사용되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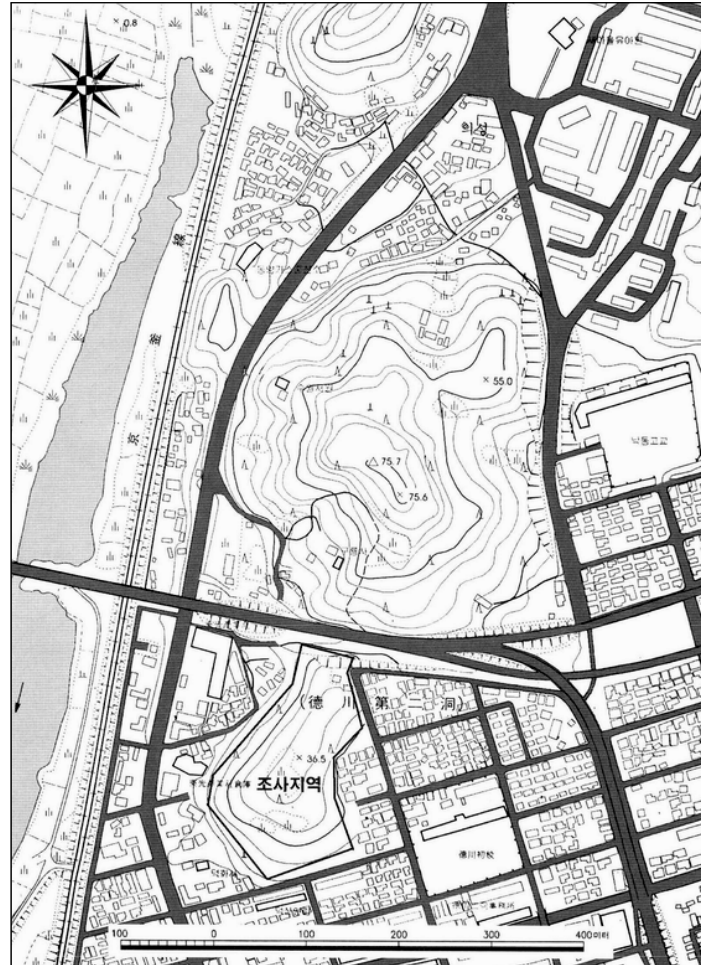
4) 심봉근 등, 『구포 덕천리유적』 동아대학교 박물관, 2006

5) 기와의 수명은 약 30년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체가 이루어진 관계로 정확한 연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최근에는 기와화회까지 만들어 지면서 향후의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지만, 와요의 조사 성과가 축적된다면 보다 정확한 연대 추론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파악된다.

6) 심봉근 등, 전계서, 2006

7) 당시는 왜성 지성부 구간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것으로 추정된다. 임진왜란 당시 우리나라의 기록에서는 구법곡(仇法谷)이나 감동포(甘同浦)로 나타나고 있다.⁸⁾ 그런데 일본측 기록에서는 이러한 지명이 나타나지 않고 카도카이성(カトカイ城)이라는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다.⁹⁾



도면 1. 구포왜성과 지성부의 지형도

8) 『宣祖實錄』에서는 구법곡(仇法谷)이나 감동포(甘同浦) 양자가 모두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구법곡의 명칭 앞에는 양산이라는 지명이 붙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양산왜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9) ‘카도카이성(カトカイ城)’이라는 명칭에 대하여 한국의 학자들은 일본 측이 부여한 명칭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일본의 학자들은 당시 한국의 지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의 유래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구포왜성을 지칭하고 있음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1593년(文祿2年) 4월 왜병은 서울에서 경상남도 연안지역으로 철수하고 이어 7월에 중요한 항만이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축성을 개시하는데, 그 중에 구포왜성(カトカイ城)의 명칭이 나타나고 있으며, 책임자는 小早川侍從(小早川隆景)을 중심으로 5명의 무장이 협력하여 축성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⁰⁾ 축성은 1593년 7월 27일 豊臣秀吉의 지시문이 하달되는 것으로 보아 공사는 상순경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¹¹⁾, 9월 25일에는 이미 축성이 끝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1595년 6월 말경에 일본군은 강화회담을 통하여 경남 일대의 모든 왜성을 폐기하고 철수하게 되는데, 선조 28년(1595년) 7월 8일 기록에 의하면 3차에 나누어 철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¹²⁾

이후 1597년 정월 강화회담이 결렬되면서 정유재란이 발생하게 되는데, 당시 일본군은 양산왜성을 수축하여 부산포 방위의 범위를 더 북쪽으로 확장시켰다. 이후 전황이 악화되자 양산왜성은 부산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비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으며, 1598년 3월 13일 토요일 히데요시는 양산왜성에서 구포왜성으로 철퇴하기를 명함과 함께,¹³⁾ 毛利秀元들에 의하여 구포왜성의 수축공사가 개시되는데, 늦어도 3월 말경에는 완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 黒田長政이 양산왜성에서 구포왜성으로 입성하여 수비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수축 완료에서 2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1598년 5월 22일 豊臣秀吉의 명에 의하여 폐기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선조 31년(1598년) 8월 23일자 기록에도 관련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¹⁴⁾

10) 倭城研究會, <龜浦城> 『倭城』 I, 1976

11) 『小早川家文書』『先度被仰遣候處二 かとかいの城普請等丈夫申付 無異儀貴朝之由 犬思召候』

12) 『선조실록』 65권, 선조 28년 7월 8일 기묘 : 「...그가 말하기를 『임랑포(林浪浦)·두모포(豆毛浦)·부산(釜山)·동래(東萊)·구법곡(仇法谷)·김해(金海)·덕교(德橋)·안골포(安骨浦)·거제(巨濟)·장문포(場門浦)는 금명간 먼저 들어 보낼 것이고, 그 밖의 6진(陣)과 죽도진(竹島陣)은 그대로 놓아둘 것이다. 행장은 부산으로 진을 옮겨 수로(水路)의 편리함을 취해 명사(明使)를 영접할 것이고, 의지(義智)는 어제 성자(城子)를 모두 부수어버렸으니 뒤따라 마땅히 군막(軍幕)을 불사르고 동래로 옮길 것이며, 가덕(加德)의 진영은 행장이 있던 옛 진영으로 옮기고, 청정(淸正)은 복병장(伏兵將)으로서 양산(梁山)·구법곡에 진영을 옮기고는 명사를 기다려 모두 바다를 건너갈 것이다.』고 하였다...

13) 倭城研究會, <島津家文書> 『倭城』 I, 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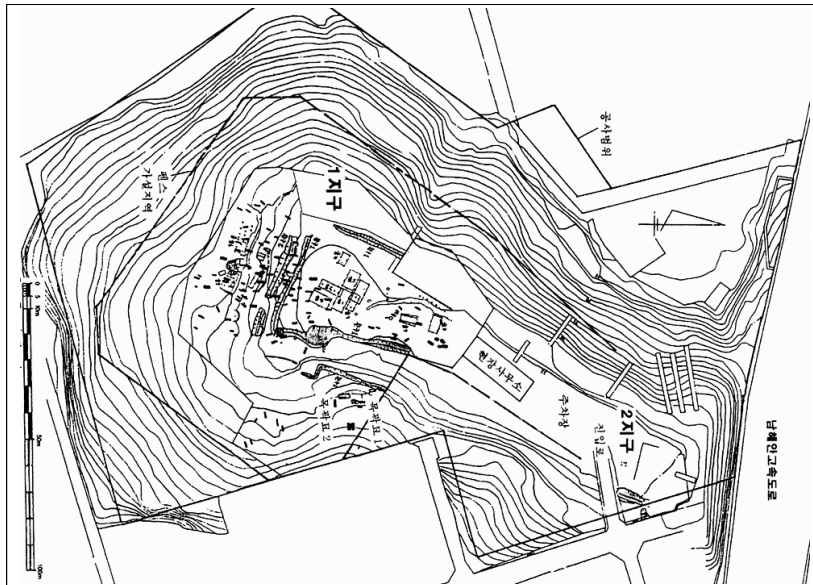
14) 『선조실록』 103권, 선조 31년 8월 23일 병자 : 「경상 관찰사(慶尙觀察使) 정경세(鄭經世)가 치계하기를, "관백(關白)의 병이 중태라니 이미 죽었다느니 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허탄하기에 상계 보고하기 어려워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개 구법곡(仇法谷)의 적(西生浦)로 옮겨간 것은 매우 확실한데..."

2. 구포왜성의 지성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성부 구간은 2차에 걸쳐 구포왜성이 축성되는 과정과 폐기과정을 밟았는데, 지성구간에 대한 발굴조사에서도 당시 굴립주 건물지의 중복현상 등을 통하여 확인되었으며, 구포왜성 지성부의 규모와 구조는 그림 2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현재는 고속도로에 의해 본성부와 끊어져 있지만 원래는 토루 형태로 연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구간에서는 삼한시대의 목곽묘를 비롯하여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분묘, 즉 목관묘에서 상당한 양의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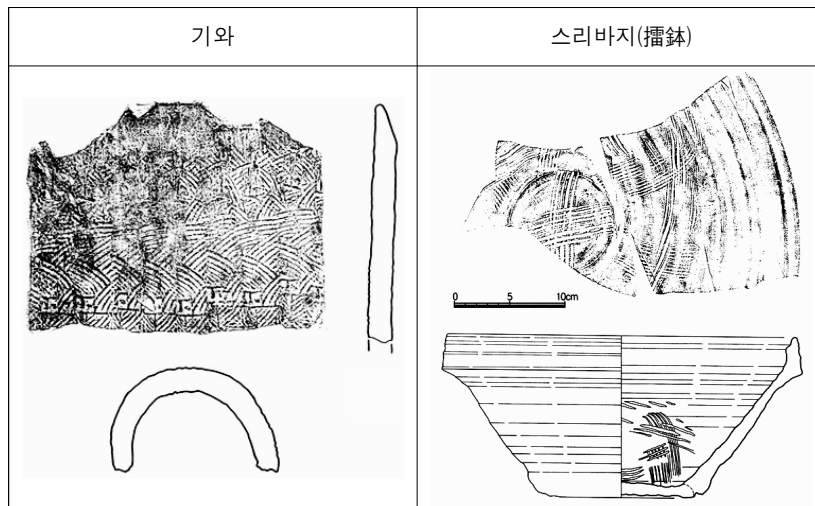
왜성과 관련된 시설은 해발 36.5m 지점의 구릉 정상부를 지형구조에 따라 장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둘러싸고 있는 구상유구(空堀)와 함께 그 상부에 조성된 토루, 그리고 내·외부에서는 각종 굴립주 건물지와 출입시설(虎口), 화장실로 추정되는 수혈유구, 堀切 등 왜성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제반요소들이 확인되었다. 이 중에는 중복되는 건물지와 환구 외곽에 나타나는 건물지, 空堀 위에 판축 토루가 조성되는 등 동시기로 볼 수 없는 현상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앞서 축성관련 기록 검토를 통하여 2차에 걸쳐 축성과 폐기과정을 거쳤던 것을 확인하였던 바와 같다.



도면 2. 구포왜성 지성구간 조사 평면도

지성부 출토유물은 기와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각 유구에서 출토되는 기와들은 대체로 조선 전기로 편년되는 것들이며, 자체 제작한 것이 아니라 인근지역의 기와 건물들로부터 공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양한 문양의 내용으로 보아 시기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중에 주목되는 것은 구상유구 내부에서 일본 전국시대, 즉 16세기대의 특징을 가진 조리용구인 스리바찌(掃鉢) 3점을 비롯하여(도면 3) 중국 명대의 청화백자편, 조선시대 분청사기편, 도기편, 지식편, 그리고 시기적 연관성이 없는 회청색 경질토기편과 통일신라시대 인화문도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도면 3. 구포왜성 지성부 출토유물

이 중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들이 소지하였던 유물로 스리바찌(掃鉢)가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유물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임진·정유재란기에 사용되었던 일본군들이 사용하였을 유물들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토기는 일본의 전국시대 말기인 織豊時代¹⁵⁾ 瀬戸·美濃窯에서 출토된 것과 닮은 것으로, 岡山縣 備前窯에서도 유사한 것이 출토되고 있다.¹⁶⁾ 이들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임진왜란 시기 일본군들의 보급물자 공급지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¹⁵⁾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와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중앙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시대로, 아즈치-모모야마(安土桃山)시대로도 불린다.

¹⁶⁾ 岡山縣備前市備前陶藝美術館, 『備前焼一千年の流れ展』, 1991

Ⅲ. 고려·조선시대의 분묘와 주거지 출토유물

1. 분묘

구포왜성 지성부 구간에서는 삼한시대 분묘 2기를 비롯하여 고려시대의 분묘 16기와 조선시대의 목관묘 20기, 근세의 옹관 1기 등 모두 49기가 조사되었다.¹⁷⁾ 이 중 고려 및 조선시대 묘제는 모두가 동일한 목관묘이며, 규모나 형태, 장축방향 등 구조상으로는 특이한 차이점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조선시대의 경우 장벽 상단에 감실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시대와 큰 차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상부가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출토 유물에 의하여 구분할 수밖에 없다.

고려시대 청자의 경우 기법과 특징에 따라 시대 순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인 이 당시 도자기의 대분류와 같이¹⁸⁾ 순청자 단계, 상감청자 단계, 그리고 분청사기 단계로 이어지게 된다.¹⁹⁾ 이 중 순청자 단계에는 음각문이나 압출양각문양들이 같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2호, 4호, 16호묘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상감청자 기법이 나타나는 것은 1호, 5호, 6호, 9호, 10호, 15호묘이며, 나머지는 공반유물이 적고, 문양이나 뚜렷한 특징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조선시대에 이르면서 모두 분청사기가 출토되고 있는데, 기법상으로 본다면 30호분의 경우, 선명한 인화문양이 시문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덩벙기법으로 백토분장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 외에도 자기가 공반되지 않고 순가락이나 청동합, 청동이식, 그리고 철제 가위나 못 등이 출토되고 있다.

이들을 분류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편년의 바탕이 되는 것은 많은 양의 일괄유물을 신고 항해하다 난파당한 해저 침몰선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그 외에 청자의 제작기법과²⁰⁾ 고려시대 분묘 출토 자기류나 도제호와 같

17) 이곳의 고려·조선시대 분묘군은 일반적으로 이곳의 지명을 따라 덕천동유적으로 널리 불리고 있다.

18) 부산박물관, 『부산도자기』,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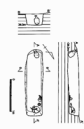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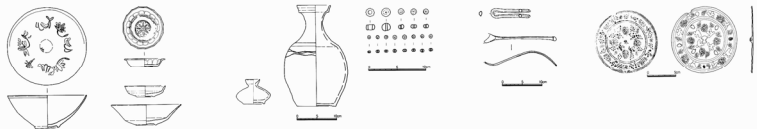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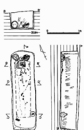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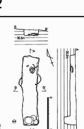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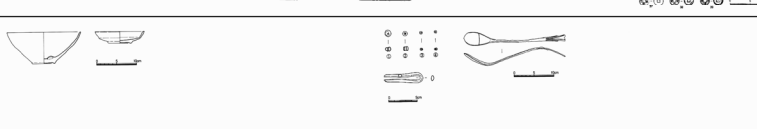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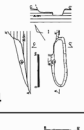



19) 강경숙은 고려청자 편년을 여명기(800년대)와 발전기, 변화기로 구분한 후, 이 중 발전기 1단계는 통일신라말-981년까지, 2단계는 982-1122년까지, 그리고 3단계는 1123-1259년까지로 보았다. 그리고 변화기의 제1단계는 1260-1351년, 제2단계는 1352-1432년까지로 분류하고 있다. 강경숙, 『한국도자사의 연구』, 시공사, 2000

20) 아래의 논문을 주로 참고하였다.

이종민, 「11-12세기 조질청자의 계통과 편년」, 『미술사학』18, 2004; 정양모, 「고려 청자의 연구」, 『미술사학연구(구 고고미술)』, 1986; 방병선, 「고려청자의 기술사적 고찰」, 『미술사학연구』

은 유물들과의 공반 관계, 그리고 각종 건물지나 분묘에서 출토된,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동전이나 청동 숟가락²¹⁾ 등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면 4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모두 5단계로 편년표를 작성하였다.

1단계는 순청자 단계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3곳의 분묘군에서 출토되었는데, 색상은 황록색과 녹청색, 녹갈색을 띠며, 전체적으로는 회색조가 가미된 황갈색이나 황록색에 가깝다. 이 중에는 문양 틀을 이용하여 압출양각 기법으로 모란 당초문양이 나타나는 대접류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법은 11세기 후반~12세기 전반에 나타나는 기법으로 알려져 있으며,²²⁾ 공반되는 청자화문형접시의 경우, 11세기 말 이후 중국의 영향으로 큰 시기 차 없이 고려청자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³⁾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것들이 부산 구량동성지나²⁴⁾ 동래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도면 4. 구포왜성 지성부 구간인 고려·조선시대 분묘 편년
(1: 16호묘, 2: 1호묘, 3: 3호묘, 4: 30호묘, 5: 16호묘, 6: 29호묘, 7: 41호묘)

구(구 고고미술), 1993

21) 정의도, 『한국 고대 숟가락 연구』, 경인문화사, 2014

22) 정신욱, 『11세기 말~12세기 전반 고려청자에 보이는 중국도자의 연구』미술사학』21, 1993

23) 정신욱, 상계서

24) 부산박물관, 『부산도자기』, 2014

고읍성지²⁵⁾ 등 여러 지역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이 시기 부산지역의 호족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단계 중 가장 늦은 시기에 해당하는 제1호 분묘에서는 39점의 동전이 출토되었는데, 이 중 가장 늦은 것이 금(金)의 정릉통보(正隆通寶 1156)이며,²⁶⁾ 이와 함께 상감기법이 가미된 유병도 출토되었다. 이 분묘의 경우 동전의 연대를 고려하면 12세기 중반에 해당하며, 상감기법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음의 2단계와의 과도기에 해당한다. 이 단계의 유물들은 군산 십이동과도 해저유적²⁷⁾에서 인양된 유물들과 비교하여도 특징상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반된 도제 호의 경우, 다소 늦은 듯한 느낌을 주지만 12세기로 편년되는 군산 야미도 해저유적 출토품²⁸⁾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 전반 혹은 중반 경으로 편년할 수 있을 듯하다.

2단계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아주 발달된 상감청자류가 출토되는 단계이며, 분묘의 수나 출토유물의 양과 내용면에서 가장 주체를 점하고 있다. 1단계가 황갈색 혹은 황록색조의 어두운 색조를 나타내는데 비하여 2단계에서는 동일한 전통을 이어 받은 것도 있지만, 대체로 회색빛이 가미되면서 약간 밝은 녹갈색류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들은 인근의 동래 고읍성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²⁹⁾ 1단계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밝은 빛을 띠며, 약한 비색을 띠는 것들도 일부 확인된다. 상감청자의 유약은 중국의 용천요와 관요 청자와는 달리 잘 분쇄되어 최소한의 소성 시간과 온도로서 유약 아래의 상감이 뚜렷이 나타내면서 독특한 명도와 색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고려청자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³⁰⁾ 청자의 기형이나 기법, 문양과 공반유물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12세기 전·중반~13세기대로 편년할 수 있을 듯하다.

3단계는 문양이나 뚜렷한 특징, 공반유물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기 설정을 고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전 단계에 비해 자기의 태도가 거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 단계 이후가 되면 유물의 부장량이 급격히 줄어들 뿐 아니라, 구포왜성의 경우, 도면 4에 제시되지 않았던 대부분의 조선시대 묘에서는 대접과 접시 2개의 셋트 관계로 부장하는 공통적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

25) 경남문화재연구원, 『동래 고읍성지』, 2007

26) 심봉근 등, 『구포 덕천리유적』 동아대학교 박물관, 2006, 258쪽.

27)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군산 십이동과도 해저유적』, 2005

28)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군산 야미도』, 2007

국립해양유물전시관, 『군산 야미도 II』, 2008

29) 경남문화재연구원, 『동래 고읍성지』, 2007

30) 방병선, 『고려청자의 기술사적 고찰』 미술사학연구(구 고고미술), 1993

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자의 내면 저부에 소성과정에서 기공이 침투하여 돌출되어 나타나는 현상 등은 1, 2단계와 뚜렷히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려 청자는 13세기 이후 쇠퇴기에 접어들기 때문에,³¹⁾ 고려 말에 해당하는 14세기 대로 편년하였다.

4단계는 삼도 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의 인화기법의 분청사기류가 부장되는 시기로, 뚜렷하고 선명한 인화분청 문양이 나타나기 때문에 15세기 대 분류할 수 있다.³²⁾ 전술하였던 바와 같이 3단계 이후부터 자기류의 부장량이 급감할 뿐 아니라, 대접과 접시, 혹은 대접 대신에 청동합이 셸트 관계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대부분의 무덤에서 숟가락이 출토되는 점이 주목된다. 이 중 숟가락의 경우, 그림 4의 6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전



삼도 1. 30호 분묘 출토 인화분청사기 내부의 문양

단계까지 강하게 꺾여 져던 숟가락이 완만한 형태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단계와는 뚜렷히 구분되기 때문에 주목된다. 한편 이 단계에 이르면서 부산지역의 각종 성지와 관아, 사지 등에서 출토사례가 많아지는데, 조선 건국(1392년)을 전후한 시기로부터 1420년 무렵까지의 분청사기는 그릇 표면에 백토를 칠하지 않은 것이 많고,³³⁾ 태종 17년(1417)부터 세조 10년(1464)사이에는 각종 관사명(官司銘)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³⁴⁾

마지막으로 5단계는 분청사기류의 최종 단계이며, 기형에 나타나는 특징은 대접의 경우, 저부의 대각부가 아래로 강하게 돌출하면서 이전에 비하여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징은 임진왜란 이후에 나타나는 백자와 기형적으로 유사하다. 아울러 내부 저면의 바닥 부분이 이전 단계보다 상당히 넓어지는 특징이 주목되는데, 넓은 내면의 저부에서 구연부를 향해 직선상으로 곧게 뻗게 나가면서 전체적인 느낌도 달라 보이게 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15세기 후반, 분청사기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질이 점차 조잡해지며, 장식기법과 형태, 제작 방법 등에서 이전의 것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 나타나며, 이와 대조적으로 백자는 질이 더욱 좋아지고 제작량이 증가하는 등 대조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

31) 이종문, 『14세기 후반 고려상감청자의 신경향』 『미술사연구(구 고고미술)』, 1994

32) 김영원, 『조선전기 도자의 연구』, 학연문화사, 1995

33) 부산박물관, 『부산도자기』, 2014

34) 정양모, 『분청사기 인화문대접 시고』 『역사학보』27, 1965

다.³⁵⁷ 그런데, 백자의 사용은 진상품과 이전에 번조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이 금지되었기 때문에,³⁶⁷ 인화문양이 대부분 소멸하고 거친 태도에 백토분장과 귀얄 문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전반적인 유물의 부장 양상은 4단계와 유사하지만, 그림 4의 7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4단계에 이르면서 숟가락 손잡이의 굴곡형태가 이전 단계보다 완만해지는데, 5단계에 이르면서 더욱 완만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는 구포왜성 분묘의 최종단계이며, 15세기 후반으로부터 입진 왜란이 발생하는 16세기 후반까지로 추정된다.

2. 주거지

전술하였던 바와 같이 구포왜성 지성부 구간에서는 3동의 수혈 주거지가 조사되었으며, 구조와 출토유물은 도면 5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왜성 바깥의 동쪽 사면에서 나란히 확인되었는데, 주거지의 형태는 초기 철기시대의 늪도유적 구릉사면에서 확인되는 주거지와 거의 흡사한 구조이며,³⁷⁷ 비교적 경사가 급한 사면에 조성되어 있다. 때문에 노출된 형태는 반원상의 구조를 나타내며, 나머지 부분은 경사면 바깥에 기둥을 세워 기둥을 만든 후. 판상의 목재를 연결하여 마루 형태의 주거지 바닥부분을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잔존하는 산지 쪽으로는 아궁이 시설과 배연부 시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주거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매우 특이한 구조이며, 때문에 이 주거지의 용도와 성격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보고서에서는 삼년상을 위한 묘막시설로 가능성을 추론하고 있다.³⁸⁷

그러나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에 대한 보고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극빈 하층민이나 화전민과 같은 다양한 주거유적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다.³⁹⁷ 도면

³⁵⁷ 전승창, 「15세기 분청사기 및 백자의 수요와 제작성격의 변화」, 『미술사연구』12, 1998

³⁶⁷ 『조선왕조실록』권 39, 세조 12년(1466년) 6월 7일 기사 “백자기(白磁器)는 진상과 이전에 번조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부터 공사 간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한 사람은 공인(工人)까지도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써 과죄하도록 하고, 또 공물을 정하지 말고서 공사를 명자하여 사사로이 제조하는 폐단을 방지하며, 무릇 백토가 산출되는 곳은 소재읍으로 하여금 도용을 금하고 빠짐 없이 장부에 기록하여 본조와 승정원에 간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³⁷⁷ 심봉근, 『사천 늪도 C1』,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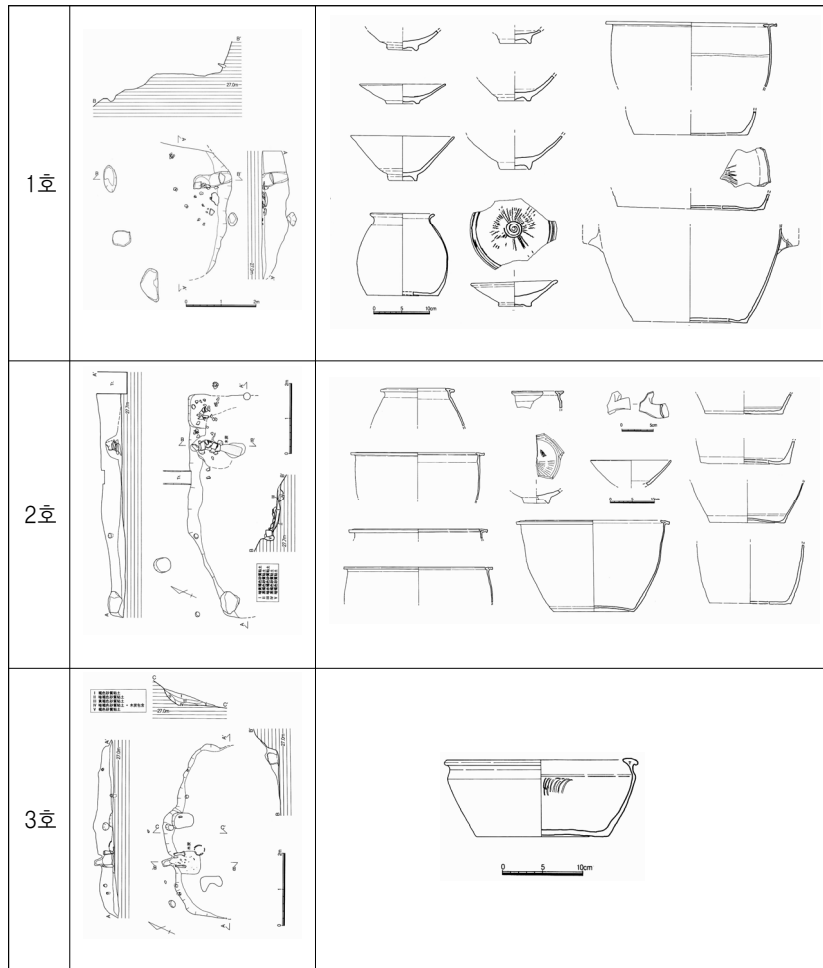
³⁸⁷ 심봉근 등, 『구포 덕천리유적』, 동아대학교 박물관, 2006

³⁹⁷ 충청문화재연구원, 『6.8 조선시대』 『청주 오송유적-종합고찰-』, 2018, 245쪽

오송유적 조선시대 주거지 고찰 부분에서 남창 손진태 선생의 『조선 고대 민가 형성고』를 인용한 다음의 구절은 조선시대 수혈주거지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된다.

“라. 나는 1892년 경성 동대문 밖에서 소의 움집을 7~8호 발견하였다. 거기에는 적빈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모두 짚신을 삼는 것이 업이었다. …그들은 오직 가난한 탓에 이렇게 아무렇게나 집을 엮고 사는 것이었다…그들은 지면을 방형으로 2·3척 깊이로 파고 그 위에 나무와

5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1호 주거지의 경우, 일상 생활용기로 사용되었을 분청사기류의 경우에는 도면 4에 나타났던 4단계와 비교하여 질이 매우 조잡한 편이며, 때문에 5단계의 분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도면 5. 구포왜성 지성부 동쪽 사면의 조선시대 수혈 주거지와 출토유물

기종은 대접이 주종을 이루며, 접시류와 목이 짧은 소형 단지가 있다. 대접이나 접시와 같은 도자기의 특징은 도면 4의 5단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저부의

깊으로 지붕을 만든다. 그리고 바닥에는 거적이나 샷을 깔면 훌륭한 그들이 거처가 되는 것이다. 이 거처방과 외부와 통하는 출입구 바로 옆에 작은 부뚜막을 만든다. 그리고 옥상에는 남쪽으로 작은 창을 내었는데, 이 창으로 채광을 한다.”

대각부가 돌출할 뿐 아니라, 자기 내부 저면의 바닥 부분이 이전 단계보다 상당히 넓어지면서 구연부를 향해 직선상으로 뻗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는 매우 넓은 저부에 구순부가 넓고 기벽이 얇은 도기들이 주종을 이루는데, 가로로 붙은 손잡이 편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개중에는 손잡이가 부착되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2호 주거지의 경우에는 역시 1호 주거지와 동일한 특징의 분청사기 대접으로 저부 1점을 비롯하여 1호 출토품과 거의 같은 약간 소형의 대접류가 출토되었다. 그 외에는 저장용기로 추정되는 넓은 구연과 저부를 가진 옹형의 도기들이 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술한 1호 주거지와 유물의 특징이 동일하다.

3호 주거지의 경우에는 매우 넓은 저부를 가진 옹형의 도기가 완형으로 출토되었으며, 그 외 유물들은 출토되지 않았다. 어깨 부분에 단이 저 있지만 구연부의 형태나 도기에서 나타나는 제반특징으로 보아 모두 동시기의 주거지로 판단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3개의 주거지는 모두 도면 4의 자기 분류표에 나타나는 5단계에 해당한다.

IV. 출토유물에 대한 검토

구포왜성 지성부 구간에는 이미 삼한시대부터 묘지로 사용되었던 곳이며,⁴⁰⁾ 통일신라시대 인화문토기편도 구포왜성 지성부 내에서 출토된 바 있기 때문에 이곳이 오랜 기간에 걸쳐 묘지로 사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 이르면서 16기의 분묘 내에서 목관묘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어져서 조선시대에서도 동일한 목관묘가 조성되었는데, 상부 구조물은 이미 훼손되어 확인할 수 없지만, 하부 토광의 구조, 규모 및 형태, 장축방향 등 조선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조선시대의 경우 장벽 상단에 감실을 설치한 것들이 나타나 차이를 느끼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분묘의 축조는 1593년 7월, 이곳에 왜성이 조성되면서 더 이상 묘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때문에 왜성 축성 직전, 즉 임진왜란

40) 유구 내부에서 출토된 회청색 계통의 연질 화로형토기를 비롯하여 각종 토기의 특징을 고려하면 대략 3세기에 축조된 고분으로 추정되면, 인근의 노포동고분군과 시기적으로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대학교 박물관, 『부산노포동유적』, 1988

직전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진왜란 당시 사용되었던 유물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곳의 조선시대 분묘 중 가장 늦은 단계, 즉 도면 4의 5단계 유물과 구포왜성 지성부 출토유물, 지성부에서 확인된 주거지 출토유물을 대비한다면 이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20기에 달하는 조선시대의 분묘 중에는 토광 하부에 목관 대신 평기와를 이용하여 만든 瓦棺(와관)이 1기 확인되었다. 평기와는 모두 5매가 출토되었는데, 이 중 3매는 바닥에 깔려 있었고, 나머지 2매는 상부에 덮인 상태였다. 그런데 바닥의 것은 2매가 일부 중첩되어진 상태로 확인되었고, 상부의 기와 중 1매는 목관이 부식되어 내려 앉으면서, 그 상부에 놓였던 기와가 크게 기울여지면서 한쪽이 내려앉은 상태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한 점은 상부에 떠있는 상태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기와 사이에는 가운데 목관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기와는 각기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림 6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3종류로 구분하였다.⁴¹⁾ 이 중 A형은 2단으로 문양이 구성되어 있다. 상단부 절반 이상의 부위에 타날을 가하면서 창해파문(어린문)이 일정한 문양 효과를 나타내도록 정연하게 조정된 것이다. 그 하단에는 선조문과 같은 흔적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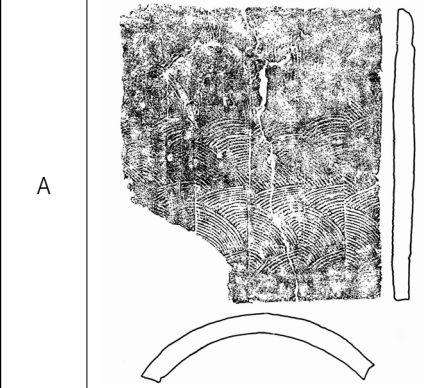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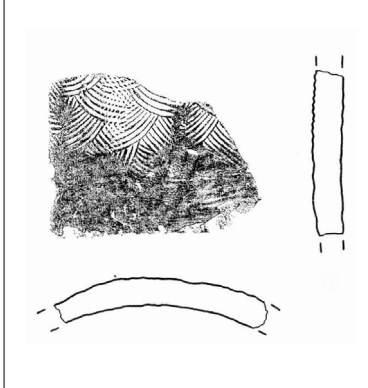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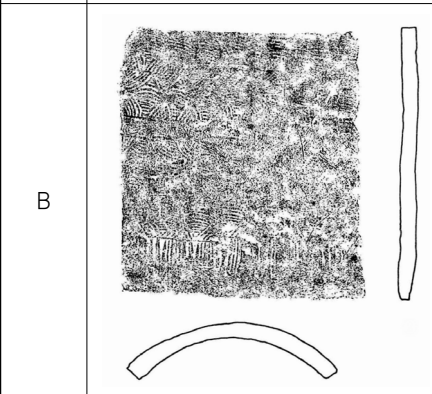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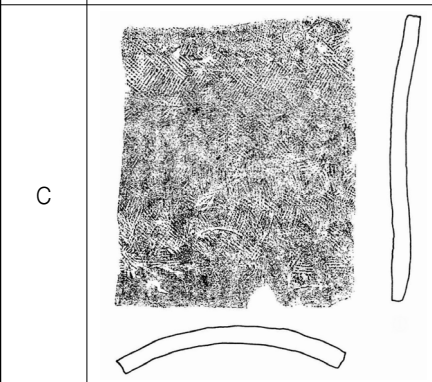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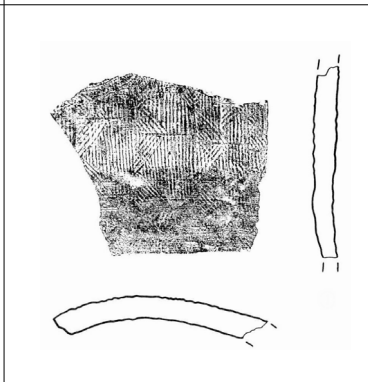
B형은 3단으로 문양이 구성되며, 상단부의 꺾이는 지점까지 수직상의 선조상의 타날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가운데 지점은 다소 불확실한 부분이 있지만 원권상의 내부를 창해파문으로 채워진 듯한 문양 구성을 이루고 있다. 하단부 끝부분에는 수평상의 약간 타원에 가까운 짧은 선으로 타날되어 있다.

C형은 상단의 꺾이는 지점까지 B형의 하단부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수평상의 짧은 집선문으로 구성되고, 가운데 부분은 능형(菱形) 집선문의 형태로 교차 타날한 것이다. 이 외 나머지 2점에는 삼각집선문과 같은 형태를 띠는 것도 나타나고 있다.

구포왜성 지성부 구간에서는 여러 지점에 흩어져 있는 상당히 많은 기와들이 출토되었는데, 그 중 대부분이 구상유구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앞서 II장의 축성과정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1598년 5월 22일 豐臣秀吉의 명에 의하여 구포왜성을 완전 폐기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기와들이 확인되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은 그림 5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특징을 가진 것들이다. 분묘에서는 평기와만 출토되었기 때문에 동류의 기와만 비교하였지만, 왜성 지성부 구간에서는 언장과 미구를 갖

⁴¹⁾ 상단과 하단의 구분은 단면의 폭이 좁고 약간 뾰족한 부분을 상단으로 분류하며, 그 반대편을 하단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제시된 도면은 도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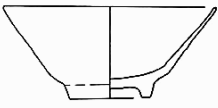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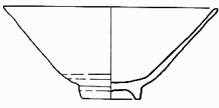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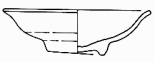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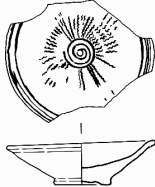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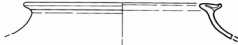

춘 수키와들도 출토되었지만, 문양의 구성기법은 대체로 창해파문(어린문)을 중심으로 선조문, 능형집섬문, 어골문 등이 복합시문된 것들로, 대체로 유사한 편이다.

형식	와묘(瓦墓)	구포왜성 지성부
A		
B		
C		

도면 6. 조선시대 목관묘 출토 기와와 지성부 출토 기와의 비교

따라서 이러한 기법의 기와들은 임진왜란 당시 사용되었던 기와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거지 출토 유물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호 주거지와 2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자기는 모두 분청사기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림 7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문양이 쇠퇴하고 거친 태토에 백토분장된 귀얄문이 나타나고 있다. 이 중 2점에서 다소 정연하지 못한 문양이 나타나고 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문양이 모두 사라지고 대부분 백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퇴화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전 단계에 비하여 대각이 돌출하고 바닥 중앙부가 돌출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형은 저부 가까운 지점에서 약간 단을 이루면서 직선상으로 크게 외반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26호 분묘	주거지	구포왜성 지성부
대접			
접시			
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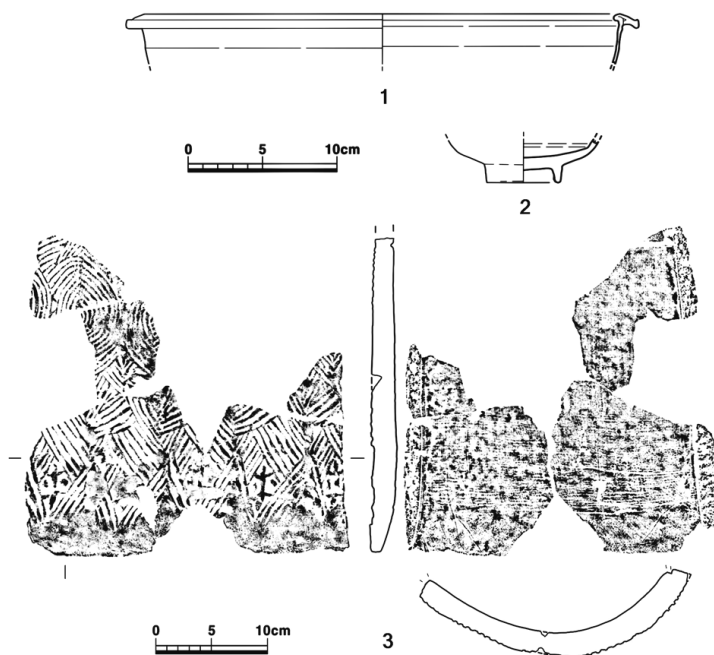
도면 7. 26호 분묘와 주거지, 구포왜성 지성부 출토유물의 비교

20기의 조선시대 분묘 중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것은 26호분을 비롯하여 몇몇의 사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도면 7의 좌측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도기가 출토되지 않는다. 구포왜성 지성부 내에서는 이 시기에 해당하는 동일한 특징을 가진 도기 2점이 출토되었으며, 함께 비교할 수 있는 자기는 출토되지 않았다. 하지만, 주거지에서는 이들 3가지 종류가 모두 출토되었기 때문에, 그림 6에 나타

나는 바와 같이 공통성을 보여주는 것들을 나열하면 교집합 관계에 따라 이들은 모두 같은 시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가진 도기와 자기류는 앞서 검토하였던 기와류와 함께 임진왜란 당시까지 사용되었던 유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포왜성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지성부 구간과 분묘를 통하여 임진왜란 당시에 사용되었던 유물로 확인된 유물들이 다른 왜성유적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검증하면서 고찰을 마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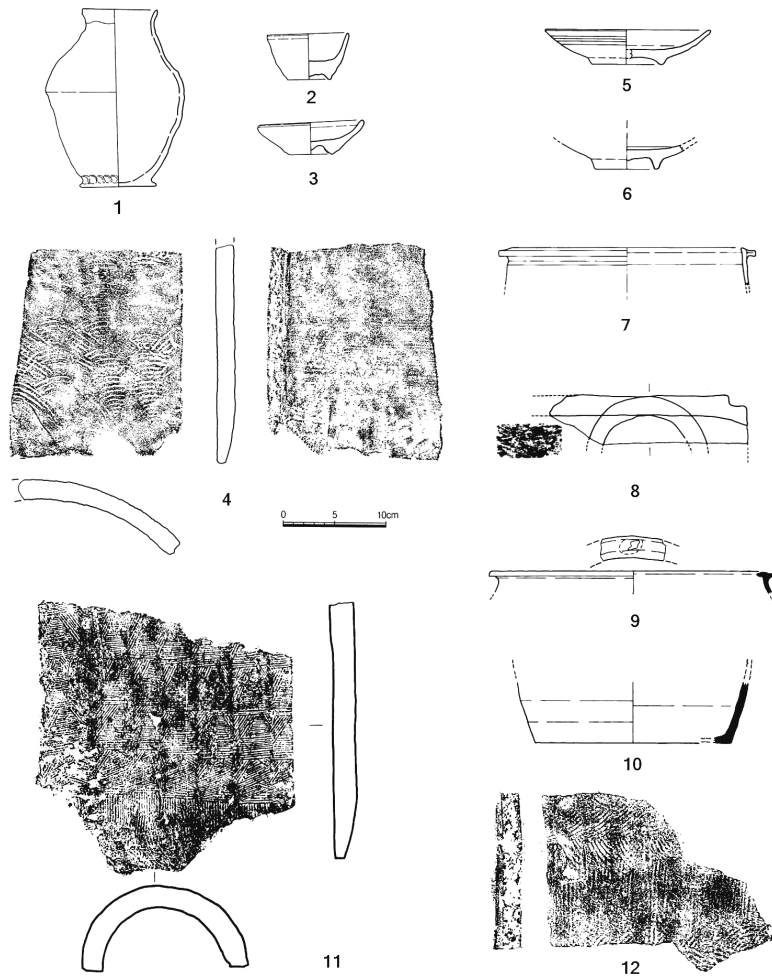
부산시 동구 좌천동에 위치하는 부산왜성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였던 곳이며, 때문에 모든 보급물자들이 이곳을 통해 각 지역으로 보내졌다.



도면 8. 부산 자성대 왜성 출토유물

구포왜성의 지성부와 마찬가지로, 이 부산왜성의 지성 역할을 한 곳이 지금 자성대로 불리는 곳이며, 임진왜란 이후에는 왜성을 취하여 부산진성이 이곳으로 이설되었다. 이 남쪽 도로변에 조선통신사 기념관을 건립이 계획되면서 2009년 8월 19일부터 동년 10월 15일까지 우리문화재연구원에 의하여 발굴조사가 이루어

어졌는데,⁴²⁾ 그 과정에서 도면 8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제 반 특징은 구포왜성 지성부의 주거지 출토품과 같다.



도면 9. 각 지역 왜성 출토 유물
 (1~4 : 부산 죽도왜성, 5~8 : 울산왜성, 9,10 : 안골포왜성,
 11 : 남해왜성, 12 거제도 송진포왜성)

또한 인접한 죽도왜성⁴³⁾을 비롯하여 울산왜성⁴⁴⁾에서 출토되었으며, 이 외에도 도면 9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거제도 송진포왜성 등 남해안 각 지역의 왜성에

42) 우리문화재연구원, 『부산진성-자성대왜성-유적』, 2011

43) 동아대학교박물관, 『강서 죽도성지』, 2006

44) 동아대학교박물관, 『울산왜성·병영성지』, 1986

서 지표채집된 유물들 중에는 전술한 내용과 동일한 것들이 다수 확인된다.⁴⁵⁾

이들 발굴자료 및 지표채집 유물의 특징은 앞서 설명하였던 구포왜성의 분묘출토 도자기 5단계, 그리고 도면 7에 나타나는 구포왜성 지성부 구간이나 주거지 출토 유물과 특징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임진왜란 당시까지 사용되었던 유물들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V. 맺음말

머리말에서도 밝혔듯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우리나라 정치 문화사적으로 획기적 전환점을 제공한 대사변이었다. 시기 구분에 있어서도 이를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가 이를 기점으로 하여 이전과 이후의 문화와 흔히 비교되고 있다.

그런데 임진왜란 당시 사용된 도검이나 총포 등 무기류를 제외하고는 고고학에서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와나 토기, 혹은 자기를 중심으로 임진왜란 당시 사용되었던 유물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비하다는 느낌을 가졌고, 단순히 발굴이나 지표 채집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왜성에 대한 발굴 자체가 매우 희소할 뿐 아니라, 후대의 유물들이 혼입되는 등 당시의 유물임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발굴과정에서 충분한 입증할 수 있는 지층을 형성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가깝고, 더욱이 왜성에서 벌어진 전투 자체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과거 구포왜성 조사과정에서 임진왜란 당시와 관련되는 주거지의 재 규명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왜성 지성부에 조성되었던 조선시대 분묘와 주거지, 구포왜성 지성부 출토 유물과의 비교를 통하여 당시 사용되었던 기와와 토기, 자기의 내용과 성격을 추출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IV장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임진왜란 이후 분청사기류는 완전히 소멸하고 새로운 백자로 대체되는 현상은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본 주제와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이러한 현상은 각주 36에 제시하였던 『조선왕조실록』 권 39, 세조 12년(1466년) 6월 7일 기사를 참조할 수 있으며, 이와

45) 黒田慶一·山崎敏昭, 『巨濟島4倭城の瓦』 『倭城』 I, 1997; 小澤晃子, 『安骨浦倭城の採集陶磁器』 『倭城の研究』 4號, 2000; 黒田慶一, 『明洞倭城の陶磁器·瓦類』 『倭城の研究』 5號, 2002

함께 『경국대전주해』형전(刑典)의 금제(禁制)조 백자기에 “임금의 반찬그릇은 백자기를 쓰고, 동궁은 청자기를 쓰고, 예로 맞이하는 손님은 무늬 있는 그릇을 쓴다.”라는 기사를 통하여⁴⁶⁾ 조선 전기에 백자는 최상위급의 상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각주 36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조정에서는 귀족층을 포함한 민간에서 사용을 엄격히 금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금제조치가 임진왜란을 계기로 와해되면서 이후, 본격적인 백자의 사용 시기로 전환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구포왜성 지성부 출토 유물을 비롯하여 소개된 관련 유물들은 임진왜란기 당시의 유물은 분청사기류의 마지막 단계가 될 뿐 아니라, 이후 새로운 백자로 대체되는 단계와의 과도기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투고일 2018년 10월 19일 | 심사완료일 2018년 10월 26일 | 게재확정일 2018년 10월 26일 ■

46) 『經國大典註解』(經國大典註解 後集) 刑典 禁制 白磁器條

“大小員人用紅·灰·白色表衣, 白笠·紅黏者, 酒器外, 金·銀·青畫白磁器者 … 私占柴草場者, 竝杖八十。”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
강경숙, 2000, 『한국도자사의 연구』시공사
경남문화재단연구원, 2007, 『동래 고읍성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3, 『무안 도리포 해저유적』
_____, 2005, 『군산 십이동파도 해저유적』
_____, 2007, 『군산 야미도』
_____, 2008, 『군산 야미도 II』
_____, 2008, 『안산 대부도선』
국립해양문화재단연구소, 2009, 『고려청자 보물선 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보고서』
_____, 2009, 『군산 야미도 III』
_____, 2010, 『태안마도 1호선』
_____, 2011, 『태안마도 2호선』
김영원, 1995, 『조선전기 도자의 연구』, 학연문화사
나동욱, 2012, 『한국의 왜성 연구』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 2000, 『南海倭城の瓦類』 『倭城の研究』4號
동아대학교박물관, 2006, 『강서 죽도성지』
_____, 1986, 『울산왜성·병영성지』
방병선, 1993, 『고려청자의 기술사적 고찰』 『미술사학연구(구 고고미술)』
부산대학교 박물관, 1988, 『부산노포동유적』
부산박물관, 2014, 『부산도자기』
심봉근 등, 2006, 『구포 덕천리유적』 동아대학교 박물관
_____, 2005, 『사천 늑도』C1
우리문화재단연구원, 2011, 『부산진성-자성대왜성-유적』
이중문, 1994, 『14세기 후반 고려상감청자의 신경향』 『미술사연구(구 고고미술)』
_____, 2004, 『11-12세기 조질청자의 계통과 편년』 『미술사학』18
이형재, 2000, 『한국 남해안 왜성 축조술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승창, 1998, 『15세기 분청사기 및 백자의 수요와 제작성격의 변화』 『미술사연구』12
정양모, 1965, 『분청사기 인화문대접 시고』 『역사학보』27
_____, 1986, 『고려 청자의 연구』 『미술사학연구(구 고고미술)』
정신옥, 1993, 『11세기 말-12세기 전반 고려청자에 보이는 중국도자의 연구』 『미술사학』21
정의도, 2014, 『한국 고대 손가락 연구』, 경인문화사
충청문화재단연구원, 2018, 『조선시대』 『청주 오송유적-종합고찰-』

- 『小早川家文書』
岡山縣備前市備前陶藝美術館, 1991, 『備前焼一千年の流れ展』
笠谷和比古, 2003, 『丁酉再亂(慶長の役)と泗川倭城戦闘』『壬辰倭亂과 船津里城』
山崎敏昭, 1997, 『巨濟島4倭城の瓦』『倭城』I
山崎敏昭, 2000, 『南海倭城の瓦類』『倭城の研究』4號
小澤晃子, 2000, 『安骨浦倭城の採集陶磁器』『倭城の研究』4號
白峰 旬, 1999, 『文祿・慶長の役龜における秀吉朱印狀(城郭關係分)について』『倭城の研究』3號
倭城研究會, 1976, 『龜浦城』『倭城』I
黒田慶一・山崎敏昭, 1997, 『巨濟島4倭城の瓦』『倭城』I
黒田慶一, 1997, 『倭城の滴水瓦について』『倭城』I
黒田慶一, 1998, 『順天城の採集遺物』『倭城の研究』2號
黒田慶一, 2002, 『明洞倭城の陶磁器・瓦類』『倭城の研究』5號

Abstract

On the Relics of Japanese Invasion Period in Gupo Waeseong-Jiseong

Lee, Dong-ju

Imjinwaeran was the Major event that provided not only the culture of the Joseon Dynasty but also the epochal turning point of modern history in Korea.

In addition to the division of times, it was accompanied by a change in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material culture of archeology such as costume, objects and tombs as well as castle structures and weapons due to military system and tactical changes.

However, despite this great transformation, there are not many archaeologists who deal with the Waeseong left behind. In particular, to understand the breakthrough in the cultural history of the tim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lics at that time, but most of them consist mainly of Waeseong structures and construction methods. The reason for this is probably not because there are not many investigations on Waeseong, but because it is very difficult to prove it simply by excavation or surface collection.

However, in Gupo Waeseong, three settlements in the Joseon Dynasty were confirmed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it was judged that this dwelling was abandoned due to the construction of Gupo Waeseong.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relics that were used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through the review of the settlements and excavated artifacts.

Key Words : Gupo Waeseong, Imziwaeran, Jungyujaeran, Pottery of the Joseon Dynasty, Thoribatzi